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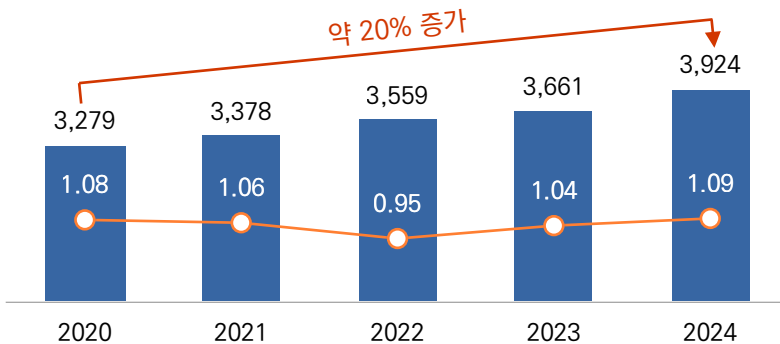


## [2024 고독사 실태] 고독사 사망자 수, 5년 새 20% 증가

- 고독사 문제는 독거노인,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미 중요한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았다. 고독사는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(고독사예방법 제2조)을 의미한다.
-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'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'에 따르면,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,924명으로 2020년 3,279명 대비 약 20% 증가했다.
-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2022년(0.95명) 잠시 100명당 1명 아래로 내려갔다가, 다시 상승해 2024년 1.09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.

[그림]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발생 현황

○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(점) ■ 고독사 사망자 수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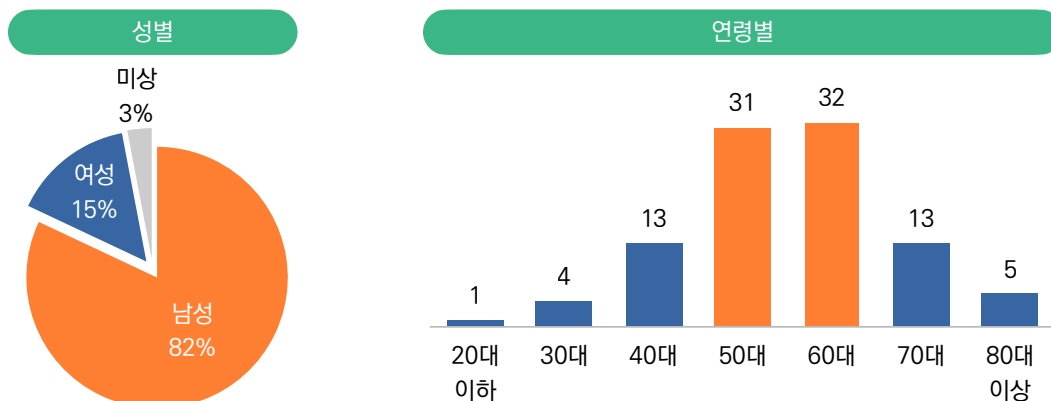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 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

## 고독사 사망자, ‘50·60대 남성’!

-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·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2%로 여성(15%)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고, 연령별로는 50대(31%), 60대(32%)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.
-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[그림] 성별·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특성 (2024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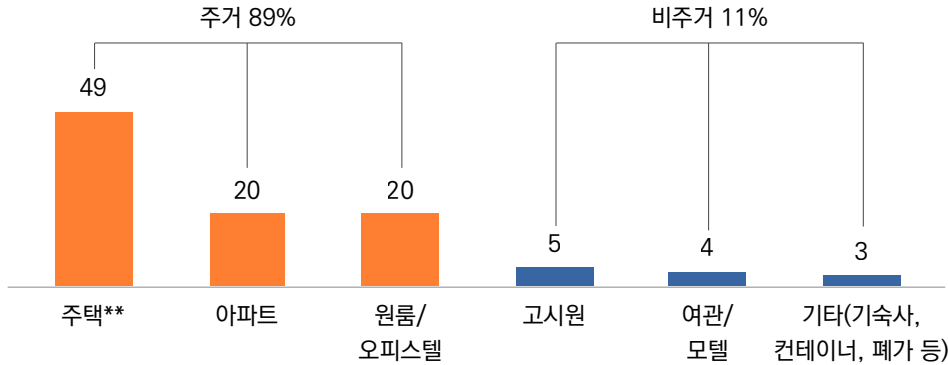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 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

## 고독사 발생 장소, 주택 등 대부분 주거지!

- 고독사 발생 장소로는 주택(49%), 아파트(20%), 원룸/오피스텔(20%) 등 대부분 주거지(89%)에서 발생했으며, 그 외 고시원 5%, 여관/모텔 4% 순이었다.

[그림] 고독사 발생 장소\* (2024, %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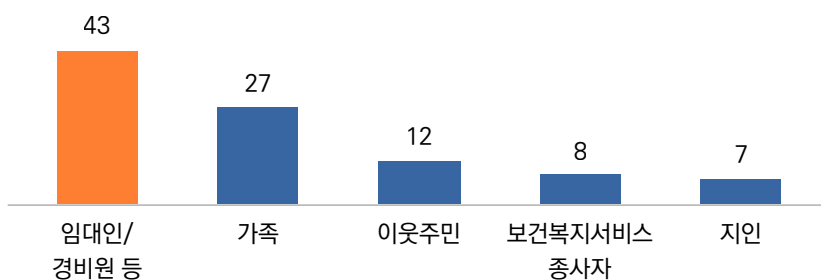
\*주거와 비주거 구분 : 주거는 ‘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시 거주 공간’, 비주거는 ‘일시 숙박·단기 체류 중심 공간’을 의미함.

\*\*주택 : 단독, 다세대, 연립, 빌라

## 고독사 최초 발견자, ‘임대인/경비원 등’이 ‘가족’보다 훨씬 많아

-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(신고)한 사람은 ‘임대인/경비원 등’이 43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가족’(27%), ‘이웃주민’(12%), ‘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’(8%) 순이었다. 가족, 지인보다는 임대인/경비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이 높은 점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상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.

[그림]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(신고)한 사람 (2024, 상위 5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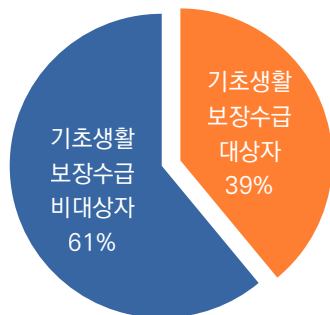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

##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10명 중 4명꼴!

-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, 39%로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.

[그림]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현황 (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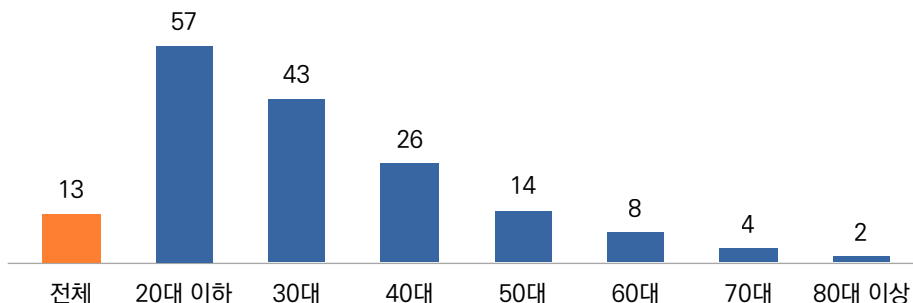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

##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,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!

-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3%였으며,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7%로 가장 높았고, 30대 43%, 40대 26% 등의 순으로 나타나,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\* (2024, 연령별, %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, “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”(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), 2025.11.28.